

나의 서원 나의 신행 <5>

# 부처님 가극으로 음악인생 갈무리 하고파

## 삼귀의·사홍서원 작곡한 최영철 불교음악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범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

삼귀의(三歸依)와 사홍서원(四弘誓願)은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맹서(盟誓)해야 하는 발원문이다. 이는 불(佛)·법(法)·승(僧) 삼보에 돌아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단을 의지처로 삼아가겠다는 염원이자 목표이며 불자가 지켜야 할 4가지 큰 서원이다.

두 발원문은 불교계 행사나 법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염불이자 의식 찬불가이다. 국가 행사 시작 전 부르는 ‘애국가’와도 같다. 때문에 드물게 사찰 행사에 참석해 본 불자라도 이 찬불가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찬불가 가운데 의식곡으로 대표적인 삼귀의·사홍서원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최영철 작곡가(87)이다. 최 작곡가는 1971년대에 조계종 총무원에서 개최한 찬불가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세상에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새로 소개했다. 그가 40년 전 현직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공모한 곡이 지금까지 2000만 불자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삶과 불교음악 이야기를 듣기 위해 현재 그가 이끄는 합창단이 있는 천안 성불사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최영철 작곡가는 직접 피아노 반주와 지휘를 하면서 합창단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최영철 작곡가는 졸수(卒壽)를 앞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충청 지역 사찰 불교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서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서원은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최영철 작곡가는 “아직도 삼귀의, 사홍서원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뭉치 모르게 뭉클한 마음이 우러 나온다”며 “두 곡을 작곡한 계기로 불교음악에 평생 동안 진력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찬불가 공모라는 우연한 계기가 불교계의 한 획을 긋는 큰 인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최영철 작곡가는 성불사 외에도 대전 흥통사, 대전 보현불교대학 합창단, 마곡사 공주포교당 등 충청 지역 사찰 불교합창단 4개를 지도하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는 주말·주중 할 것 없이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에는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아침부터 분주하다.

최영철 작곡가는 “교직에서 은퇴 후 불교합창단을 지도하고 불교음악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등 불교음악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며 40여 년 불교와의 연을 소개했다.

그의 불교 인연은 20대 후반 대전 보문학원 보문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충남불교청년회 이재복 회장이 재직 중이었다. 이재복 회장은 보문학

원 초기부터 학원 설립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평소 교직원들에게도 불교교리를 가르칠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였다. 최영철 작곡가도 이재복 교장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배우며 신심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최영철 작곡가는 이재복 교장으로 부터 한 가지 권유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찬불가 공모전에 나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당시 불교음악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계종 총무원은 찬불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971년 불교연합회 주최로 찬불가를 공모하고 있었다.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그에게 교장의 제안은 부담스럽기만 했다.

“교장선생님의 제의를 받았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 때는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찬불가는 제게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교장선생님의 독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 공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을 고민하며 살았고 영감이 떠오를 때 마다 메모하고 밤을 새우면서 보내기가 일수였죠. 그렇게 한 몇 달은 고생한 것 같아요.”

당시 삼귀의와 사홍서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문가사에 얽매고 있었어요. 그러다 찬불가보급운동에 큰 업적을 세운 운문 스님이 작사한 삼귀의, 사홍서원 두 곡이 전국 사찰에서 불렸다. 가사의

### “찬불가 공모전 나가는데 어떻게냐”

보문고 재직시절 이재복 교장 권유

수개월 혼신다해 삼귀의·사홍서원 탄생

전국 2000만 불자가 부르는 불교의식곡

### 퇴직 후 충청지역 사찰 합창단 지도

올가을 세번째 ‘최영철 찬불가집’ 출간

찬불가 작사·작곡·부르기 모두 수행

“항상 자비심으로 노래 부르세요”



최영철 작곡가가 작곡한 삼귀의·사홍서원은 전국 사찰 행사의 시작과 끝에 불리고 있다.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천안 성불사 합창단 지도를 하는 최 작곡가의 모습

뜻은 같아도 노랫말은 전혀 다르게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최영철 작곡가는 한 나라의 국가(國歌)를 만드는 심정과 각오로 노래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작곡은 긴 곡 보다 짧은 곡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짧은 곡 안에 사람의 감정을 모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삼귀의, 사홍서원은 박자와 선율의 진행이 자유롭고 단순해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두 곡이 불리기까지 최영철 작곡가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 짧은 시에 영원히 불려도 질리지 않는 음악, 불심이 가득 담긴 곡을 만드는 데는 보통 가사에 곡을 붙이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했다.

최영철 작곡가의 찬불가 작곡 과정은 마치 작가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응축해 담은 선시나 하이쿠, 또는 일생을 통해 생성된 화가의 모든 의식·무의식이 담긴 추상화와 같다. 그만큼 그는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에 혼신을 다했다.

공모에 출품 한 뒤 최영철 작곡가는 다시 일상에

로 돌아왔다. 전국에 유망한 실력자들이 많은 텐데 설마 자신이 당선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응모 했던 사실도 이내 잊어버렸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최영철 작곡가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뒤늦게 당선소식을 전해 들었다.

“당선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뭉치 기뻐했습니다. 응모자 1명당 곡 하나만 선정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작곡한 삼귀의, 사홍서원 두 곡이 모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공모 당선은 저를 평범한 음악교사에서 불교 음악인으로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후 그가 작곡한 삼귀의·사홍서원은 전국 사찰에 보급돼 오늘날 까지 각종 법회와 의식에서 불리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찬불가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경사루다’ ‘당신의 미소’ ‘좋은 날’ ‘나무 관세음보살’ 등 찬불가들이 많이 들어보고 불러봤을지라도 노래를 가운데 웬만한 것은 모두 그가 작곡한 곡들이다. 1980년대 초 대전에서 처음으로 찬불가 합창공연도 열었다.

### 최영철 작곡가는...

1925년 충남 금산에서 출생했다. 1954년 대전 보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출발해 40여 년을 보문학원에서 재직했다.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을 계기로 200여 곡에 이르는 찬불가를 작곡하고 대전·충남지역 사찰 불교합창단과 충남대 관현악단을 지도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음악인이다. 현재도 지역사찰 소속 4개 불교합창단을 지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가 지금까지 작곡한 찬불가는 200여 곡에 달한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찬불가를 모아 엮어 <최영철 찬불가집> 두 권을 펴냈다.

최영철 작곡가는 늘 곡을 쓰면서 전통음악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찬불가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염불·법문도 좋지만 최 작곡가는 음악을 포용력 있게 불교에 흡수해 현대불교·생활불교가 될 수 있도록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대백과-

2012년 최신간

권역(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 / 전3권 / 4x6배판 / 컬러판 / 양장본 / 3,600쪽 / 통계이스 / 출간총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 현금할부 11만원x3회 /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밝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다양한 이용법 등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허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체·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며져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달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태백 쓰도록 함으로써 만민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피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灸術)·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료법의 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받습니다 \*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로 된 일대일 본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투중약초를 이  
중해 나차별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해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가스부조-  
▶명실상부한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  
대할 것이다.  
-성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채집 기록 비교분석 검증 한 연구가의 60여년  
에 걸친 비범한 천재와 공력의 산물이 보 대적인 인류·숙원이 무병장수를 향  
한 수천 년 지혜의 연구 노력의 집약판이라 할 만 하며, 향후 또 다른 질병지  
료 및 신약·기능식품 등의 개발에 매우 요긴한 단초가 될 것. -김남권(한국  
약학신문 발행인)-  
▶생명을 낚고 문명을 기른 자연과 전통이란 근원에서 해법 또한 찾아낸 광  
목할 모범사례로서, 약용 동·식물·광물 등 주변의 천연소재에 내재된 각각  
의 독특한 약리성을 이용한 뛰어난 예방·치료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풀뿌리  
공용토록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았을 가운데 도출한 최선(先鋒)한 첨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  
고 있는 점을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신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저런의  
대의만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완의학 연구 등에 기여  
도가 클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로운 성과를. -조호환(중판인)-  
▶그대의 면밀함을 요하는 참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아마도 이후 어  
떤 노작(勞作)도 이에 미치지 않는 힘들 것. -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강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를 앞선 복원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  
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 -전  
통의학신문-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  
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 ('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최영철 작곡가

삼귀의 (三歸依) 四弘誓願 作曲公考에  
최영철 (崔永哲) 當選

1971년 대한불교신문(現 불교신문)에 게재된 최영철 작곡가의 찬불가 공모 당선 기사



최영철 작곡가는 교직 은퇴 후 충청지역 불교합창단을 지도하고 불교음악을 연구·발표하는 등 불교음악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대중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싶어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를 수 있으면서도 다른 음악가들과는 다른 저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예를 들면 목탁소리 같은 불교를 나타내는 효과음을 넣는 식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노래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일념 하나로 자신만의 색을 고집해온 그는 올 가을 세 번째 찬불가집과 음반을 펴낼 계획이다. 또 그의 대표곡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는 출판기념음악회도 개최한다. 이에 앞서 6월 23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불교음악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최영철 작곡가는 “작곡은 그 과정이 수행과 같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노랫말로 지어내 열 번 스무 번 넘게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작곡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작품을 통해 찬불(讚佛)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곡을 쓸 때 수십 수백 번도 넘게 가사를 읊습니다. 곡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찢어버린 오선지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만큼 창작활동은 고통이지만 곡이 하나 완성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찬불가 작곡과 작사는 물론 지역 사찰에서 불교합창단 지도자로서의 활약으로 큰 공로를 세웠다. 오로지 불교음악으로서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겠다는 서원 하나로 오늘도 재가불자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천안 성불사합창단 박봉순 단장은 “최영철 선생님이 합창단을 맡은 지 10년 됐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활력 있는 모습으로 단원들을 지도하신다. 선생님의 덕분에 여러 합창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최 선생님의 철저한 프로의식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노래 한 마디도 어느 것 하나 대중 흘러보내는 것 없이 철저하게 강약을 조절하며 부르도록 연습을 시키신다. 항상 자비심을 갖고 노래를 부르라고 강조해서 그 덕에 신심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봉순 단장은 “최영철 선생님 같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시고 불교음악에 평생 매진해온 분은 없다. 이런 분에게 배

삼귀의

최영철 작곡

강중하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사홍서원

최영철 작곡

강중하게

중생들 다 천 지 오 리 다

번 거듭 다 끊 으 으 리 다

범 분 음 다 배 우 으 리 다

불 도 들 다 이 부 으 리 다

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최영철 작곡가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다.

“불교음악은 변패(倖敗)를 바탕으로 합니다. 염불과 같은 불교적 요소를 예술·음악적으로 찬불가에 담아야 하는데 그러면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작곡·지휘자 대부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다 보니 약 70%의 찬불가가 서양음악적인 음색을 띠고 있습니다. 불교적 감각의 작품을 써야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불자들이 찬불가 대중화에 힘써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포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의 주위 환경을 배경으로 곡을 많이 썼다. 염불의 율함과 동양적인 선법을 중심으로 작곡 한 것이 특징이다. 최 작곡가는 찬불가 부르는 것이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찬불가 부르는 것은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공경하는 마음·감정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말이죠. 수행활동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더욱더 찬불가를 부르고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불교계에서 진행되는 불교음악 페스티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불교합창단 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모여 합창 경연에 해야 하는데 전공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성인과 어린이가 시합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공자들은 빼고 순수하게 어머니, 아버지 합창단이 경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노래를 못해도 좋으니 불자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찬불가가 활성화 될 수 있지요.”

최영철 작곡가는 40여 년을 불교음악과 함께해 왔듯이 앞으로도 줄곧 불교합창단과 창작활동을 하며 보낼 계획이다. 최 작곡가는 불교음악의 대중화·생활화라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며 삶을 갈무리 하고 싶어했다. 특히 부처님에 대한 가극을 쓰고 싶어했다.

“4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가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원고도 다 있는데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아직 완성을 다 못했어요. 오페레타(operetta, 오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대사와 노래, 무용 등이 섞인 경(輕)가극) 같이 현대적이면서도 대중적 성격을 띤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 가극을 완성해 모두에게 선보이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첫 경험

‘첫 경험’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첫 경험을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로만 한정짓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판능적인 사고이다.

3월은 첫 경험의 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식이 있고 모든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낯선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구름떼처럼 밀려오는 낯선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예전 학교와는 달리 높은 층의 학교는 친근감 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다가도 곧 익숙해져 주변에 우리 학교는 높이가 몇 층이나 된다니 교실에 비치된 교재들이 새 것이라고 뽐내기도 한다. 인간은 두려움도 이내 감내하는 지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첫 경험은 단연 자동차 핸들을 잡고 도로를 질주하는 일일 것이다. 평소 걸어서 한 시간 쯤 걸리던 거리를 몇 분 사이에 달리는 기분은 문명의 이기가 주는 기쁨이다. 그렇다면 아늑한 여마 품에서 먹고 자다 이윽식을 시작했을 때의 괴로움과 얼마 치마폭을 벗어났을 때의 두려움은 어떠했는가. 참 가공할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첫 경험은 두려움이다. 태어났을 때 상황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일성은 ‘음에’라고 알고 있다. 즉 첫 번째 행위가 우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두렵기 때문이다. 아기는 자궁이라는 세상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욕심도 없이 살았다.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성장 자체를 즐기며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내용대어졌을 때의 두려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그 고요하고 안락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뉘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궁안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물침대를 개발하였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몸을 녹이기도 한다. 목욕을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목욕물에 소금을 타기도 한다고 한다. 자궁의 양수(羊水)는 바닷물과 같은 농도로 짜기 때문이다.

길손이 종일 건다 그 그리워지는 곳은 집이다. 원시인들이라면 동굴일 것이다. 집에 가면 휴식 공간도 있고 낮익은 가족이란 얼굴들이 주는 편안함도 있다. 가족 간에는 생략한 말이라도 통하는 소통의 언어란 단조롭게 그치지 않다. 원시인들의 수렵생활은 맹수에 노출된 위험상황이 도처에 있다. 그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곳은 동굴이다. 비행기도 그렇다. 자리에서 베틀을 누르면 여승무원이 곧 앞에 대기한다. 승객의 불편함이 즉시 해결되기 마련이다.

동굴과 집이 있어도 두려움은 소멸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라 봐도 두려움은 가

시지 않고 쌓여만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범어로 두려움을 udvejana-kara라고 한다. ‘흥분이나 고통을 야기 시키는 것’이란 말이다. 세분해 보면 udvejana는 ‘공포나 추위로 떨다’라는 말이고, kara는 ‘광선’이란 뜻이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유행의 것에서 충족될 수 없다. 무형의 것에서 완성을 이룬다. 고대 광설에 시는 사람의 삶이 그리 편안하지는 않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눈길은 보면 왠지 초점을 잃고 사는 경우를 쉬 발견할 수 있다. 그들에게서 안정을 찾아보려면 어렵다. 지치지 않은 사람의 삶, 안락나의 일상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에게서 두려움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마지막 경험도 두려움이다. 그런데 붓다의 열반상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의 내색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오아시스를 만난 대상(大商) 마냥 편안함이 깃들어 있다.

인도인들에게 내세는 따뜻하길 바라지 않는다. 일 년 내내 덥지만 넉 달은 살인적인 더위이

두려움 해소 물질로 충족되지 않아 체험 통한 깨달음이 두려움 없어

기 때문이다. 그들이 갠지스강을 성수로 하여 목욕재계하는 것도 더위를 극복하려는 행위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도 갠지스강에 목욕하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발원도 더위 극복이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물론 갠지스강 상류에 시바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반면에 티베트인들이 내세가 선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운 곳에 사는 그들에게 날씨가 선선한 내세는 끔찍한 일이다. 내세가 추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입증하면 몸이 따뜻해 질 뿐 아니라 사시사철 따뜻한 새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세를 설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와 문화도 각기 다른 지리적 특징과 다른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통과하려면 모든 것은 색다른 첫 경험을 하려다. 그 색다른이란 누구나 쉽게 맛 볼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다. 깨달음은 신분의 고하, 부의 유무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의 첫 경험 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하고 이웃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묘약임이 분명하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쳐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지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박물관,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범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림과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